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3호 【루게 제24341호】 주제102(2013)년 10월 20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보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0일과 1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트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68돐경축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로동당만세》를 관람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사상이 높은 유명한 애국주의적인 작품들과 경음악들을 무대에 올린 배우들을 높이 치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런 혁명적인 예술단체를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넷홈페이지 등 많은 소식은 보도하였다.

중국의 《한구시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체육관에 나오시어 성황리단 진행된 전국대학체육경기 대종체육부부 결승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이번 체육경기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도대항체육경기를 정제화하고 민족체육에 힘을 넣어 누구나 건강하고 활력을 띠고서 국가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데공보》, 인터넷홈페이지들인 인민망, 동방망,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트린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인 환구망, 보도망, 광명망, 《로씨야의 소리》방송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인 인민망, 신화망, 보도망, 동방망, 《로씨야

의 소리》방송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입사할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전하였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었다.

네팔신문 《아트란》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2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보도사는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김정숙평양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정숙평양직공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헌신의 력사를 잘 알수 있다고, 이 공장에는 대원수님들의 인민편이 집대성되어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었다.

이러 종합생산지형실, 인건전직장, 견본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새로 장비한 방직설비들의 기술특성,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방직설비들의 고속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질 높은 옷감과 각종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의도라고 말씀하시었다.

공장에서 생산한 양복 및 사츠천들의 질이 높다고 하시면서 이런 천들을 가지고 학생교복과 인민들이 입을 여러가지 옷들을 만들면 거리와 마을이 환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공장의 후방 사업정형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공장합숙을 찾으신 김일성주석께서 로동자들이 먹는 국맛까지 친히 보아주시었다며 김정일령도자께서 공장합숙을 잘 지켜주며 대해 간곡히 당부하시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책임지고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공장합숙부지도 몸소 정해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전초기구나 같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 지난 기간 해놓은 일도 많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중국의 《인민일보》, 홍콩 봉황위성TV방송과 인터넷홈페이지 광명망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었다.

중국의 《인민일보》, 《한구시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보시었다며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으신고 준공준비를 잘함대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 동방망, 네팔의 인터넷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전투합숙들을 보시고 그 공훈편을 지도하시었다 소식을, 마오스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석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터넷홈페이지, 통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이 1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혁명의 대전망, 태양의 성지는 송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를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헌상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회사의 선군명장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를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헌상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회사의 선군명장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를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헌상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회사의 선군명장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를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헌상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회사의 선군명장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를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헌상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그들은 영생홍들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군건설사상과 업적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선군혁명의 최후승리의 날이 앞당겨지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호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경의 표시를 하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헌상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회사의 선군명장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를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헌상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회사의 선군명장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를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헌상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회사의 선군명장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를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헌상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회사의 선군명장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를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헌상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회사의 선군명장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막시끼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세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옹위하며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중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일당백혁명강군의 위용을 힘차게 펼쳐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그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호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경의 표시를 하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헌상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회사의 선군명장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를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헌상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회사의 선군명장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를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헌상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회사의 선군명장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를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헌상을 모신 후에 들어섰다.

김정은동지를 모신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이다

국제사회계가 혁신

회세의 정치거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령도따라 강력한 전투적합모부, 참모단 어머니당으로 백승벌침가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성과 양양한 전도에 대하여 국제사회계는 확신을 표시하고 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다. 그의 뜻을 받들어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넣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지식을 높이 추구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인디아신문 《크리쉬나 에버리》는 오늘 조선은 당과 군대와 인민이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뒤에 굳게 뭉친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였다고 전하였고 말레이시아 디순원화기 사장은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단결되어있기에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전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다. 그의 뜻을 받들어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넣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지식을 높이 추구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인디아신문 《크리쉬나 에버리》는 오늘 조선은 당과 군대와 인민이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뒤에 굳게 뭉친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였다고 전하였고 말레이시아 디순원화기 사장은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단결되어있기에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전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다. 그의 뜻을 받들어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전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다. 그의 뜻을 받들어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넣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지식을 높이 추구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인디아신문 《크리쉬나 에버리》는 오늘 조선은 당과 군대와 인민이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뒤에 굳게 뭉친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였다고 전하였고 말레이시아 디순원화기 사장은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단결되어있기에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전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다. 그의 뜻을 받들어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전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다. 그의 뜻을 받들어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넣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지식을 높이 추구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인디아신문 《크리쉬나 에버리》는 오늘 조선은 당과 군대와 인민이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뒤에 굳게 뭉친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였다고 전하였고 말레이시아 디순원화기 사장은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단결되어있기에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전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다. 그의 뜻을 받들어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넣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이 당정책옹위전의 열풍으로 세차게 들끓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따라 《마식령속도》창조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고있는 스키장건설자들이 공사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에 참가한 모든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작업량이 방대한 여러 판리건물들과 휴식장들, 종업원살림집 등 수많은 건물들의 내외부공사와 크고있는 다리 및 우수정화장을 비롯한 여러 대공사들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당면하여 스키장적으로 로션이 제일 긴 삭도공사와 눈포용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인민군대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강인도들려대의 일꾼들과 전투원들도 스키주루반과 하천정리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마감공사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자재들이 편이 들어닥치는 건설장에서 최후공격전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현장의 모습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물길굴건설과 압력철관조립공사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은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반적인 발전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외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활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라 해내고야 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밑에 발전소건설지휘부에서는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결사전이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전후조작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렇고 힘든 공사대상의 하나인 물길굴건설을 맡고 내려간 일꾼들은 건설자들과 함께 착안도 하고 콘크리트회복공사도 하면서 화산식정지사업으로 대중을 위훈장조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 함께 자체보장

마식령전역에 휘몰아치는 최후공격전의 기상

여러 건물 및 시설물공사 완성, 삭도 및 눈포용설비조립성과 확대

위대 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드높은 자존심으로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문화생활조건을 안겨주시려고 마식령지구의 거창한 스키장건설을 맡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세험한 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오시어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은근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었다.

스키장건설지휘부 일꾼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공사의 주타격방향을 바로 정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하고있다.

스키장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는 조건에 맞게 모든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시대를 지니는 마대장공사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큰 힘을 넣고있다.

스키장건설지휘부의 면밀한 작전에 따라 모든 일꾼들이 일사불란, 주별전투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현장을 수시로 밟으며 화산식정지사업을 근대적이 나게 공세적으로 힘있게 벌리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릴 일념을 안고 신의같이 떨쳐나선 여러 단위의 군인건설자들이 많은 대공사건설을 다그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인민군 서육속속부대의 건설자들이 백두산혁명강군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며 많은 여러 대공사건설을 성과적으로 계속하였다.

부대에게 여러 단위의 군인건설자들은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다량으로 확보하여 자재로 마련하면서 규모가 큰 건물들의 건축공사와 삭도감시 및 조종실, 여러 뿔포장을 비롯한 대공사건설을 맡고 있다.

조선인민군 신기철속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많은 공사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부대에게 여러 단위의 군인건설자들은 해발고가 높은 곳에서

의 불리한 일기조건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극복하면서 공사량 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려 호명관리건물과 삭도를 비롯한 여러 대공사건설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조선인민군 오병철속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많이 열심히 하면 우리는 한다는 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큰 규모의 다리공사와 우수정화장을 비롯한 여러 대공사건설을 보란듯이 끝냈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마식령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혁명의 불길은 조선인민군 김명도속속부대가 맡은 여러 건설장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각종

중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모든 공정을 호름식으로 추진 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려 호명관리건물과 삭도를 비롯한 여러 대공사건설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큰 규모의 가열장물조공사에서도 계속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인민군 리철훈속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대화봉정점의 휴식장과 스키주로의 중간휴식장 그리고 초중급스키 및 쉼메주휴식장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의 마감공사과정에 전념하여, 만년보종의 구호높이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마식령지구의 불리한 일기조건과 지형조건으로 하여 여러

은 공사대상으로 되어있던 산중의 휴식장건물공사들이 기본적으로 결속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스키장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공할수 있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중업원살림집구획의 대공사건설을 맡은 여러 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수십동의 살림집건물들과 락아소, 유치원 그리고 편의봉사건물의 내외부공사를 손색없이 마감하였다.

여러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제시된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마식령속도》창조의 승결을 끊임없이 높여가는 여러 부대의 군인건설자들과 들깨대원들의 애국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마식령전역에서 모든 대공사들이 끝나게 될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물길굴건설에 력량을 집중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에 선진적인 힘을 넣고 공명별, 날자별계획을 드림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떠밀어주고있다.

물길굴건설전투장에서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내뿜어지고있다. 물길굴건설 1려단의 철원, 평강, 홍천, 이천군중대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 맞게 여러가지 가지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도강굴진과 확장, 콘크리트지기파제를 제일 먼저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창도군과 천대군, 세포군, 천내리세멘트공장과 문천발전공장중대를 비롯한 물길굴건설 2려단의 건설자들도 압축기와 착암기 등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방파방법을 받아들여 방대한 물길굴공사과제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냈다.

특히 고산군중대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자기앞에 맡겨진

길굴공사과제를 끝내는데 이어 제 어렵고 방대한 조압수조강굴진을 맡아 매일 공사과제를 1. 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의 압력철관조립공사를 맡은 단위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방대한 압력철관조립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공사에 참가한 용접공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여 매일 맡겨진 압력철관조립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압력철관조립작을 맡은 단위에서도 발전소건설을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조립공사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힘있는 투쟁으로 건설성과는 날로 확대되고있다.

글 특파기자 신현일
사진 본사기자 김중훈

능력이 큰 저수지건설 마감단계

경원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경원군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능력이 큰 저수지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저수지건설공사가 완공되면 700여정보에 달하는 덕지대밭을 논으로 개간하고 물을 충분히 대우어 알곡수확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수 있다.

또한 자연호흡식물권이 형성되어 많은 양수기와 양수동력을 쓰지 않으면서도 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된다.

위대 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에 부침뎡뎡이 제한되어있지만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예비는 많습니다.》

군에서는 알곡수확의 방도를 700여정보의 덕지대밭을 논으로 개간하면서 찾았고 그 실현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관할기운전공들과 불도쟁은 전수들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리고 트랙터 트레일러들은 자체의 수거기를 트레일러 꾸러놓고 트랙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그러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십만㎡의 토량과 막물을 운반하여 전체를 20여m나 올려놓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산현을 가로지른 저수지연계가 날이 다르며 치솟아오르고있다.

군에서는 저수지건설에서 기본으로 되는 연제공사가 끝나가는에 맞게 발전소와 농민양양소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며 미리부터 저수지를 양어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지휘부의 일꾼들은 건설공사가 힘있게 진척되는데 맞게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건설자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마석경속도》창조의 불길놀이 불라는 애국의 열정안고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전투를 힘있게 다그친다

치밀한 작전, 진취적인 일본새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어 올해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를 만한 배정으로부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국 농장원들은 그 중요인 비결의 하나를 한해 농사결속을 과학적인 계획에 완강하게 내밀고있는 농장일꾼들의 치밀한 작전과 진취적인 일본새에서 찾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허를 잘 잡아들이고 낱알털기를 깐지게 하여 환알의 낱알도 허실하지 말도록 하여야 하겠다.》

적기선전투를 놓고 관리위원장과 기장장을 비롯한 일꾼들은 포전들을 돌면서 협의를 거듭하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생육후반기의 영향을 제거하여 정모양 수확고를 더 높이는 방향에서 비로시비를 하였다. 그리하여 비가올수록 밭을 갈고 기가운데 전방적인 포전들에서 천 일투가 계속 오르고있다.

따라서 비가올수록 너무 일찍 시작하면 정모양 수확고에서 많은 손해를 볼수 있고 이삭목이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베게 되므로 낱알털기에 지장이 될수 있었다. 또 너무 늦으면 가을과 운반을 하면서 낱알털기를 가져올수 없었다. 더우기 10월 중순부터 때때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가을걷이작업을 9월말부터 10월 상순으로 정해야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낱알털기를 막고 낱알털기속도를 더 높일수 있었다.

이렇게 의결이 합쳐져서 일꾼들은 작업반들을 맡고나가 적기보장의 중요성을 조급일꾼들에게 깊이 인식시켰다. 이와 함께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제각각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대로 높은 낱알털기실적으로 나타났다.

탈곡장에서의 낱알털기와 포전에서의 낱알털기를 잘 배합하여 작업반을 맡고나가 낱알털기작업에서 나서는 기술적으로 높은 실적을 올리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또한 포

전별, 품종별특성과 이삭팬 시기, 벼알과 잎의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고 가을걷이작업을 과학적으로 정한 후 그 일정을 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일꾼들은 그 계획이 과학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책상에서 따져보지 않았다. 작업반기술원들과 함께 포전들을 돌아다니며 잘 못된것을 바로잡아주면서 가을걷이일정계획을 수정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모든 작업반의 가을걷이작업이 바로 정해지게 되었다.

전투목표가 명백해지자 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의 경쟁열의는 더욱 높아져 비가올수록 최우선한 태도의 일꾼들이 되었다. 이것은 그대로 높은 낱알털기실적으로 나타났다.

탈곡장에서의 낱알털기와 포전에서의 낱알털기를 잘 배합하여 작업반을 맡고나가 낱알털기작업에서 나서는 기술적으로 높은 실적을 올리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또한 포

이때 일꾼들이 놓치지 않은 것은 품종별특성을 잘 고려하여 낱알털기를 막을수 있는 대책을 앞질러세웠었다.

실제로 벼알이 잘 떨어지는 품종을 심은 포전들부터 이동식탈곡기를 리용하여 낱알털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벼알을 실어들이는 과정에 생긴 낱알털기실적이 없었으며 낱알털기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벼베기에 단욕기, 동가리치기를 따라세우도록 노력조치를 짜고든것도, 운반조건이 나쁜 포전들에서 벼알을 제때에 큰길까지 내오도록 한것도 일꾼들이 제기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하여 예견성있게 작전한 결과이다.

일꾼들이 과학적인 타산을 앞세우면서 낱알털기를 없애고 농장적인 낱알털기를 지난해보다 열출이상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농장의 현실은 일꾼들이 대담하게 결심하고 달려붙어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발휘할 때 올해 농사결속이 그만큼 앞당겨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한성 일

혁신적인 방도를 찾아쥐고 사리원시 정방협동농장에서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사리원시 정방협동농장에서 낱알털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낱알털기에 지닌 배를 사기보다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으며 벼단운반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해내고야말겠다는 사색적각오를 가지고 달려붙어야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가을걷이철을 앞두고 관리위원장 박경동동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적 선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농장원들이 봄내, 여름내 얼마나 애써 가꾼 낱알들이, 이 귀중한 낱알을 어떻게 하면 환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실수 있는가, 여러가지 안들이 떠올랐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사색적인 방도는 없겠는가. 사색을 사색을 이어가면 그는 실농농들을 만나보았다. 그 과정에 지난 시기 탈곡기를 개조하여 낱알털기를 없앴다는 것, 지금 리용하고있는 탈곡기

들도 능률높은 탈곡기로 개조하면 낱알털기를 없애면서 올해농사를 짧은 기간에 계속할수 있게 될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즉시 해당 단위들에 알이본는 일꾼들의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 관리위원장은 우리가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려면 환알의 낱알도 허실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자면 무조건 탈곡기를 개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좀 힘들어도 탈곡기를 무조건 개조합시다.》

그러면서 그는 능률높은 벼조합탈곡기의 기술적특성을 알려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적 선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농장원들이 봄내, 여름내 얼마나 애써 가꾼 낱알들이, 이 귀중한 낱알을 어떻게 하면 환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실수 있는가, 여러가지 안들이 떠올랐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사색적인 방도는 없겠는가. 사색을 사색을 이어가면 그는 실농농들을 만나보았다. 그 과정에 지난 시기 탈곡기를 개조하여 낱알털기를 없앴다는 것, 지금 리용하고있는 탈곡기

가을걷이전투가 한창인 박천군 신평협동농장에 갔을 때 탈곡기의 동을올리는 포전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농장원들이 포전에서 이동식탈곡기로 낱알털기를 하는것이었다.

주목되는것은 낱알이 말끔히 털어질뿐 아니라 능력이 높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계화를 하여야 농사를 힘있게 하면서도 수확고를 높일수 있습니다.》

이 농장은 군적으로 알곡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별방지대 농장이다. 이로부터 농장에서는 한해농사의 마지막영농공

호평받는 이동식탈곡기

박천군 신평협동농장에서

가면서 낱알털기에서 이 탈곡기가 은을 내도록 하나하나 수리 정비하였다.

풀을 돌리려는 컷다. 포전에 전제된 이동식탈곡기의 동음이 울리면서부터 낱알털기작업이 더욱 윗갔다. 농장원들의 말에 의하면 포전을 이동하면서 이 탈곡기로 낱알털기를 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이 탈곡기로 낱알털기에서 큰 몫을 하고있다. 이 탈곡기가 없을 때에는 모든 벼단을 탈곡장까지 실어들이며 낱알

털어야 하였다. 그때에는 벼단 운반과 낱알털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풀을 들이였다.

이 탈곡기로 포전을 이동하며 낱알을 털면서부터 벼단운반에 들린 로력을 다른 농사일에 돌리었다.

또한 낱알의 허실이 없어져 더욱 좋다. 운반수단들에 벼단을 실어 탈곡장까지 날라다 털어내지않고 많은 풀을 들이였다. 그때마다 벼알이 떨어지는데 농장적으로 보면 적은 량이 아니므로 저덕이런 로력을

동원하여 훌륭한 낱알을 모아들이곤 하였다. 그러나 이동식탈곡기를 리용하는 포전에서는 낱알의 허실이 없었어 그런 일을 더는 하지 않게 되었다.

이 탈곡기는 또한 능력이 높으므로 시간당 많은 낱알을 털수 있는것을 물론 로력이 적게 들어 더욱 좋다. 작업반들에 있는 탈곡기로 낱알을 털자면 로력이 적어도 15명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동식탈곡기로는 그보다 적은 로력으로도 많은 낱알을 털수 있다.

하기에 이 농장별을 찾았던 사람들은 이동식탈곡기로 낱알털기를 하는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본사기자 김창길

관개설계연구소창립 60돌 기념보고회 진행

관개설계연구소창립 60돌 기념보고회가 19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책임비서 문경덕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연구소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관개설계연구소 설계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문경덕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 있어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2(1953)년 10월 20일 관개설계연구소를 창립하여주시고 나아가 방방포와 방도를 확히 밝혀주시였으며 설계원들과 일꾼들이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앞장서서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손잡아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관개체계를 자연호흡식관개체제로 전환시켜 토지를 사회주의국가의 토지답게 정리할

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연구소의 설계원들과 일꾼들이 국외의 면모를 알리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농장의 맹수들을 개량하고 백미-칠산물길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설계과제를 연구소에 맡겨주시는 믿음을 안겨주셨다.

연구소는 창립후 지난 6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력한 설계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나라의 믿음직한 관개설계기지로 강화발전되어 발전된 혁명적기풍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연구소설계원들과 일꾼들은 개천-대성호물길과 백미-칠산물길, 미루벌물길을 자연호흡식

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설계하고 시공되도록 책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근년간 용진-강명자연호흡식물길을 완성하기 위한 설계작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공사를 앞당겨 끝낼수 있는 전망을 보여주고있다.

그런데도, 강행군시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강인도와 황해남도, 평안북도의 수심만족의 토지정리를 위한 설계작업사업을 짧은 기간에 해내는 로력적기풍을 세웠다.

혁신적인 안목과 창조적열정으로 수많은 도시설계 기술자들이 앞장서서 설계하고 우리 식의 독특한 공법들을 창안도입하여 많은 로력과 자재, 전기를 절약하고 국가에 커다란 이익을 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관개설계연구소 설계원들과 일꾼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함과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온갖 지혜와 정열을 바쳐

사랑과 정으로 풀어주는 어머니처럼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꾼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안아 따뜻하고 보살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조소에서 믿음을 책임있게 오고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운동장들 함께

연세이가 대안구역의 어느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운동회가 있었다. 여기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달리는 경기장면이였다. 서로 호흡을 맞추며 하나의 구름에 발걸음을 맞춰나가는 그들은 어찌 보면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기업소당책임일군이 아버지 되어 그 대학과 함께 달리고있는지 그 대학 사원을 다는 알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학생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의 아버지 량성근동무는 지난 기간 618 건설철거대에 나가 일한 기업소의 유능한 기술자이다. 그는 백두산지구를 우리 당의 혁명전투요양지점으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꾼들이 중업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우리 책임비서》, 《우리 초급당비서》, 《우리 부부당비서》...

기업소당일꾼들에 대한 이런 진정된 부름에는 감동받은 사원들이 새겨져있다.

달린 아버지

꾸러는 사업에 헌신의 구슬땀을 바쳤으며 발전소건설과 그 운영에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멀리 가있는 자식을 두고 더 마음을 쓰는 어머니와도 같이 량성근동무와 그의 가정은 따뜻이 돌봐주었다. 그가 난관앞에 추지않을때와 그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가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다. ...

바로 이날도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꾼은 바쁜 일을 뒤로 미루고 량성근동무를 대신하여 운동회에 참가하였었다.

그날 운동회에서 사람들은 또 한명의 훌륭한 아버지를 보았다.

기능공의 바통

일꾼들은 객에서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보내고있는 그의 아버지 김희동무를 정경계 바라보고있었다. 아버지로서, 오랜 로동계급으로서 대를 이어가며 량성근을 지켜가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것인가.

사실 김희동동무가 말하면 한 대는 김희동은 그에게 눈길을 모으며 진심어린 축하를 보냈다. 하지만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

물길로 많은 통나무를 운반

관개설계연구소창립 60돌 기념보고회 60돌 기념보고회 19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책임비서 문경덕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연구소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관개설계연구소 설계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문경덕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 있어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2(1953)년 10월 20일 관개설계연구소를 창립하여주시고 나아가 방방포와 방도를 확히 밝혀주시였으며 설계원들과 일꾼들이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앞장서서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손잡아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관개체계를 자연호흡식관개체제로 전환시켜 토지를 사회주의국가의 토지답게 정리할

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연구소의 설계원들과 일꾼들이 국외의 면모를 알리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농장의 맹수들을 개량하고 백미-칠산물길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설계과제를 연구소에 맡겨주시는 믿음을 안겨주셨다.

연구소는 창립후 지난 6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력한 설계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나라의 믿음직한 관개설계기지로 강화발전되어 발전된 혁명적기풍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연구소설계원들과 일꾼들은 개천-대성호물길과 백미-칠산물길, 미루벌물길을 자연호흡식

로력적기풍을 세우도록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림산사업소의 당 조직에서는 마나르키에서 큰 몫을 맡아하는 끝없는 로동자들에게 대한 혁신적자축하목표에 자주 진행하여 그들이 올해 자기 맡은 과제를 영예롭게 수행하도록 조직적지원을 짜고들고있다.

지금 작업소의 일꾼들과 끝없는 로동자들은 10월까지 말려진 년간 통나무가마나르키계획을 실현 앞당겨 수행할 열의를 넘쳐 창조적 기풍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특기기자 동세웅

관개설계연구소창립 60돌 기념보고회 60돌 기념보고회 19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책임비서 문경덕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연구소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관개설계연구소 설계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문경덕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 있어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2(1953)년 10월 20일 관개설계연구소를 창립하여주시고 나아가 방방포와 방도를 확히 밝혀주시였으며 설계원들과 일꾼들이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앞장서서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손잡아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관개체계를 자연호흡식관개체제로 전환시켜 토지를 사회주의국가의 토지답게 정리할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공화국선수권대회 1급축구경기

사회주의문명건설의 불길 이 활활 타연되고있는 내 조국 땅에 체육열풍이 더욱 세차게 불어오는 10월이다.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개건 된 평양체육관과 수도의 여러 곳에서 공화국역사에 처음으로 전국대회체육경기장 성황리에 진행되고 우리 체육인들이 제 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축구, 탁구, 격기, 유술, 체조 등 여러 종목에서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여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속에서 공화국선수권대회 1급 축구경기가 현일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완강한 투지와 빠른 속도, 높은 기술과 빠른 전술로 경기를 진행하면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을 압도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습니다.》

김일성경기장 등에서 진행되는 공화국선수권대회 1급 축구경기에는 4.25, 압록강, 리명수, 화불, 평양, 만경봉, 기관차, 경공업성립을 비롯

한 10개의 남자축구팀들과 4.25, 소백수, 리명수, 압록강, 평양, 청천강팀 등 12개의 여자축구팀들이 참가하여 남, 녀별로 진행편전을 벌리고있다.

이번 공화국선수권대회 1급축구경기에서 모든 팀 선수들은 올해에 진행된 만경봉상체육경기대회, 보천보배봉상체육경기대회, 《해불집》 1급남자축구경기 등과 맹렬한 훈련을 통하여 더욱 튼튼해진 육체, 기술, 전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경기마다에서 훌륭한 장면들을 펼치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나라일에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국내축구경기를 몸소 보아주시고 2013년 동아시아경기 여자축구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 1위를 정취한 선수들을 몸가이 불러주시며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힘입어 보람과 불같은 열의로 충만된 축구선수들의 비상한 정신력으로 하여 좋은 경기성과들이 확대되고있다.

세계적수발전주세에 맞게 경기들이 더욱 속도화되고 다양한 축구기술과 전술들이 발휘되는 속에 통쾌한 득점들이 연이어 성공되고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육체적준비가 안받침되지 않으면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다. 축구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더욱 높아진 선수들의 육체적 능력이 훌륭히 발휘되고있다고 한다.

1급남자축구경기에 참가하고있는 4.25, 화불팀만 놓고 보아도 선수들이 튼튼한 육체적 능력을 소유한데 기초하여 방어주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하여 관중들의 이목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에 진행된 남자축구경기에서 평양팀 선수들은 정확한 공력타를 비롯한 좋은 기술들을 발휘하여 먼저 한골을 성공시키는데 이어 3득점으로 넘어온 공을 차지하게 머

리반하여 두번째의 결정적인 득점을 성공시킴으로써 강팀으로 알려진 상대팀을 2:1로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러 팀들에서 지난 시기의 국제국내경기들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알려진 경험있는 선수들과 함께 신진선수들도 이번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팀의 승리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관중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교향산남자축구팀의 22번 공격수 김정철선수만 놓고보아도 속도도 빠르고 1:1 돌파능력이 높은것으로 하여 상대팀들에서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못하게 하고있다.

이번 경기과정에서는 지난 3일에 진행된 1급남자축구경기에서 월미도팀 선수들이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리면서 올해의 보천보배봉상체육경기대회에서 첫차리를 차지하였던 팀을 1:0으로 이긴과 같은 경기 결과로도 나와 경기분위기를 더 한층 높이고있다.

경기에 참가한 모든 팀 감독들이 자기 팀의 특성에 맞는 경기대형을 잘 적용하고 공격과 방어가 수시로 엇바뀌는 복잡한 경기정황속에서 지휘를 기동성 있게 보장하면서 선수들의 사기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공화국선수권대회 1급 축구경기가 10월 29일까지 진행되는것만큼 아직은 어느 팀이 영예의 우승을 쟁취할것인지 예측할수 없다.

날로 변명하는 선군시대의 체육인민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하루빨리 사회주의 내 조국을 승리의 금메달로 빛내이는 축구강자로 자랄 우리의 미더운 축구선수들의 비상한 정신력과 강한 투지는 앞으로 더욱 놀라운 경기장면들을 펼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새로 발견된 광개토왕관련비석

최근 천연강대국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집안의 강기슭에서 고구려비석이 발견되었다. 비석은 화강암으로 되어있다. 비석의 현재크기를 보면 높이가 173cm, 아랫부위의 너비가 66.5cm, 두께가 21cm이다. 무게는 4.64. 5kg이고 편평한 장방형으로서 아랫부위가 약간 넓은 형태이다.

새로 발견된 비석은 광개토왕 관련비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오랜 역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다.》

광개토왕은 고구려의 명토를 넓히고 국력을 강화하며 삼국통일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적극 기여한 고구려 24대왕이다. 광개토왕의 공적은 광개토왕릉비문에 집약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새로 발견된 고구려비석의 글자모양과 비문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고구려광개토왕릉비문과 방불케 한다. 비문의 서체는 그 글자가 독특하고 웅장한 것으로 알려진 광개토왕릉비문의 예서체와 똑같다. 비문의 내용 역시 광개토왕릉비문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비문은 역대 고구려왕들이 《천도》를

《천도》를 행하는 고구려왕은 어느 왕과도 달리 조선적으로 황제라는 뜻을 태왕으로 표시하였다. 고구려왕이 하늘의 아들이며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천자)라는것을 표시한 태왕이라는 표현은 비단 이번에만 새로 발견된 고구려비석에 한하지 않는다. 비와 가까이 있는 광개토왕릉비와 모두무덤묘지명에도 그것이 명문으로 밝혀져있고 고구려의 리유보가 쓴 《동국리사국집》에도 전해온다.

고구려비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천추무덤이 있는것으로 하여 비석은 천추무덤을 지키기 위한 연호인집단지주지역에 세워진 비석으로 추측할수 있다. 그것은 나아가서 《천추한제》라는 한자글을 새긴 벽돌이 나온것으로 하여 황제와 관계된 고구려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천추무덤이 광개토왕의 부왕 고국양왕의 무덤일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해준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고구려비석은 호방하고 굳센 고구려사관들의 기상을 엿볼수 있게 하는 귀중한 유물이며 천연강으로 이름났었던 고구려력사를 더 잘 알수 있게 하는 많은 자료들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학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후보인사 오승우 박사 조희승은 이왕과도 달리 조선적으로 황제라는 뜻을 태왕으로 표시하였다. 고구려왕이 하늘의 아들이며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천자)라는것을 표시한 태왕이라는 표현은 비단 이번에만 새로 발견된 고구려비석에 한하지 않는다. 비와 가까이 있는 광개토왕릉비와 모두무덤묘지명에도 그것이 명문으로 밝혀져있고 고구려의 리유보가 쓴 《동국리사국집》에도 전해온다.

고구려비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천추무덤이 있는것으로 하여 비석은 천추무덤을 지키기 위한 연호인집단지주지역에 세워진 비석으로 추측할수 있다. 그것은 나아가서 《천추한제》라는 한자글을 새긴 벽돌이 나온것으로 하여 황제와 관계된 고구려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천추무덤이 광개토왕의 부왕 고국양왕의 무덤일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해준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고구려비석은 호방하고 굳센 고구려사관들의 기상을 엿볼수 있게 하는 귀중한 유물이며 천연강으로 이름났었던 고구려력사를 더 잘 알수 있게 하는 많은 자료들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학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후보인사 오승우 박사 조희승은 이왕과도 달리 조선적으로 황제라는 뜻을 태왕으로 표시하였다. 고구려왕이 하늘의 아들이며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천자)라는것을 표시한 태왕이라는 표현은 비단 이번에만 새로 발견된 고구려비석에 한하지 않는다. 비와 가까이 있는 광개토왕릉비와 모두무덤묘지명에도 그것이 명문으로 밝혀져있고 고구려의 리유보가 쓴 《동국리사국집》에도 전해온다.

고구려비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천추무덤이 있는것으로 하여 비석은 천추무덤을 지키기 위한 연호인집단지주지역에 세워진 비석으로 추측할수 있다. 그것은 나아가서 《천추한제》라는 한자글을 새긴 벽돌이 나온것으로 하여 황제와 관계된 고구려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천추무덤이 광개토왕의 부왕 고국양왕의 무덤일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해준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고구려비석은 호방하고 굳센 고구려사관들의 기상을 엿볼수 있게 하는 귀중한 유물이며 천연강으로 이름났었던 고구려력사를 더 잘 알수 있게 하는 많은 자료들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학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후보인사 오승우 박사 조희승은 이왕과도 달리 조선적으로 황제라는 뜻을 태왕으로 표시하였다. 고구려왕이 하늘의 아들이며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천자)라는것을 표시한 태왕이라는 표현은 비단 이번에만 새로 발견된 고구려비석에 한하지 않는다. 비와 가까이 있는 광개토왕릉비와 모두무덤묘지명에도 그것이 명문으로 밝혀져있고 고구려의 리유보가 쓴 《동국리사국집》에도 전해온다.

고구려비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천추무덤이 있는것으로 하여 비석은 천추무덤을 지키기 위한 연호인집단지주지역에 세워진 비석으로 추측할수 있다. 그것은 나아가서 《천추한제》라는 한자글을 새긴 벽돌이 나온것으로 하여 황제와 관계된 고구려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천추무덤이 광개토왕의 부왕 고국양왕의 무덤일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해준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고구려비석은 호방하고 굳센 고구려사관들의 기상을 엿볼수 있게 하는 귀중한 유물이며 천연강으로 이름났었던 고구려력사를 더 잘 알수 있게 하는 많은 자료들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학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후보인사 오승우 박사 조희승은 이왕과도 달리 조선적으로 황제라는 뜻을 태왕으로 표시하였다. 고구려왕이 하늘의 아들이며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천자)라는것을 표시한 태왕이라는 표현은 비단 이번에만 새로 발견된 고구려비석에 한하지 않는다. 비와 가까이 있는 광개토왕릉비와 모두무덤묘지명에도 그것이 명문으로 밝혀져있고 고구려의 리유보가 쓴 《동국리사국집》에도 전해온다.

고구려비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천추무덤이 있는것으로 하여 비석은 천추무덤을 지키기 위한 연호인집단지주지역에 세워진 비석으로 추측할수 있다. 그것은 나아가서 《천추한제》라는 한자글을 새긴 벽돌이 나온것으로 하여 황제와 관계된 고구려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천추무덤이 광개토왕의 부왕 고국양왕의 무덤일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해준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고구려비석은 호방하고 굳센 고구려사관들의 기상을 엿볼수 있게 하는 귀중한 유물이며 천연강으로 이름났었던 고구려력사를 더 잘 알수 있게 하는 많은 자료들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학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큰 실리를 주는 벼섯생산의 공업화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는 벼섯을 공장에서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있다. 벼섯생산을 공업화한다는것은 빛, 온도, 습도를 비롯한 환경인자들을 벼섯생장에 알맞게 인공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벼섯을 계절에 관계없이 일년내내 생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벼섯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면 생산의 집약화, 표준화를 실현하여 생산량과 품질을 높일수 있다. 최근 벼섯생산의 공업화에 주목되는 점은 우선 벼섯공간정 및 온도비를 줄이고있는것이다. 벼섯공간정설비를 줄이기 위하여 자금이 많이 드는 벼섯생장환경조절, 원료실기와 부러우기, 운반 등 많은 작업을 기계화, 자동화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최대한 국내산설비로 받아들이고있다.

공업운영에서는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계절에 따라 자연형, 중온형, 고온형벼섯들을 재배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량을 높이고 제질의 질을 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종균생산과 기질생산, 벼섯재배를 전문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 국가과학원 중앙벼섯연구소에서는 나드리벼섯, 벼섯벼섯, 털검정벼섯을 비롯한 일부 벼섯들을 공업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공업기술을 확립하였다. 본사기자 오철룡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중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과학원에서-

애독자들이 즐겨찾는 평양고서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책은 더없이 귀중한 생활의 길동무이며 풍부한 지식의 보물고이다.》

우리가 창천거리에서 자리잡고 있는 평양고서점을 찾았을 때였다.

정갈하게 꾸러진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고르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곳에는 필요한 책들을 쉽게 고를수 있는 개방된 책꽂이와 매대들이 그흔히 갖추어져 있었다. 출판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책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도 높았다.

고서점인것만큼 사람들이 이미 읽은 책들을 수매하고 다른 책들을 구입할수 있어 편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1200여종에 수만권의 책을 갖추어놓은 평양고서점에

서는 손님들에게 컴퓨터로 필요한 도서를 찾을수 있도록 목록검색과 주문서비스도 해주고 있었다.

이곳 책임자인 최미옥동무는 지난 기간 애독자들이 즐겨찾던 이곳으로 지금은 각계각층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는데 이것은 비단 애독자들의 독서열의가 얼마나 높아지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이 사실이 우리의 관심을 더욱 끌었다. 이 곳을 찾으면서 여러차례나 이곳을 찾으면서 혁명적학습기풍의 고귀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고서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어버이장군님.

사람이 책을 통하여 받아안게 되는 정신적재부는 돈으로 계산할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이 오늘도 귀전에 울려오는듯 하였다. 인류문화가 발전하면서 책방

다음주에 진행될 국내체육경기들

4.25:경공업성 (여자) 황룡산:갈매기	만경봉:황룡산
4.25:압록강 (여자) 봉화산:리명수	25일 (남자) 4.25:기관차
21일 (남자) 화불:묘향산	평양:묘향산
리명수:평양 (여자) 압록강:평양	4.25:묘향산
리명수:소백수 (여자) 화불:소백수	리명수:소백수
월미도:청천강	압록강:청천강
24일 (남자) 화불:만경봉	26일 (남자) 화불:만경봉
리명수:경공업성 (여자) 봉화산:갈매기	월미도:황룡산
월미도:황룡산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과 기계설비의 발전은 재료의 발전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현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 기초기술의 하나로 나노기술은 나노재료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새로운 나노재료를 개발하고 응용분야를 개척하는것은 나노기술에서 기본을 이룬다.

나노재료에는 3차원 공간에서 3개의 차원이 모두 나노척도에 놓이는 재료들과 적어도 한개의 차원이 나노척도에 있는 재료들과 나노재료들을 구분한다 하여 구성된 재료들이 속한다.

나노재료는 지금까지 많이 이용된 일반재료들에서는 볼수 없었던 독특한 성질들을 나타낸다. 재료의 크기가 나노척도로 작아지면 재료를 구성하는 전체 원자들중에서 절반에 위치한 원자들의 몫이 현저히 많아지게 된다. 결면원자들은 내부 원자들과는 달리 결합상태가 불안정하고 비교적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큰 화학적활성과 높은 화학 결합력, 강한 흡착능력을 가진다.

재료의 크기가 나노척도로 작아지면 재료를 구성하는 전체 원자들중에서 절반에 위치한 원자들의 몫이 현저히 많아지게 된다. 결면원자들은 내부 원자들과는 달리 결합상태가 불안정하고 비교적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큰 화학적활성과 높은 화학 결합력, 강한 흡착능력을 가진다.

금속나노입자의 특성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은 분말야금 공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야금 방법을 확립하는데 이끈다. 또 빛흡수효과가 현저히 증가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는 초고주파 흡수체료를 개발하여 전자파 차폐와 스텔스기술에 리용할수 있다.

나노기술을 리용하면 약품생산과정을 보다 정교화할수 있으며 나노척도에서 직접 원자, 분자를 배열하여 특정한 기능

육류관료리사들을 만나보고

사리, 구수하면서 단맛이 나는 감미로운 육수 그리고 조화로운 맛을 내는 꾸미고 음식물의 풍미를 높이는 고명... 육류관료리의 이러한 특색은 그 어느 단위에서도 흉내내지 못한다. 특히 육류관료리의 육수맛은 언제 봐도 독특하다.

육수를 잘 만들기로 소문난 료리사 리인순동무는 그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생전에 우리 장군님께서 육류관의 평양평면, 특히 육수의 맛과 향기를 살필데 대하여 얼마나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대로만 하였을뿐입니다.》

감동받은 리인순동무는 육수의 맛을 높이려면 육수와 꾸미를 잘 만들어야 한다. 국수를 육수에 마는 경우 육수가 너무 차면 국수가 제맛이 나지 않는다. 육수는 감칠맛이 있고 시원하며 향기로운야 한다. 육수는 고기의 단맛이 제대로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육류관에서는 지난 기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평면의 육수맛을 살필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을 잘 배워 활용하여 육수맛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료리사들이 부단한 숙련과 꾸준한 탐구 등을 통하여 육수의 맛을 살려나가고자 하는 한편 일군들부터가 엄격한 심사가 되어 그들의 실력을 평가하였다. 그 대표적실례로서 매일 육류관 일군들의 방에서 진행되는 육수맛보기를 들수 있다.

인민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육류관에서는 육수맛보기를 들수 있다. 그 대표적실례로서 매일 육류관 일군들의 방에서 진행되는 육수맛보기를 들수 있다. 인민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육류관에서는 육수맛보기를 들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음식도 민족을식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음식도 민족을식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육수, 꾸미 등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련된다. 풀것하면서도 윤기나는 국수

두 영예군인을 친혈육처럼 도와주며

해주시편의봉사관리소 노동자 김정옥동무

얼마전 우리는 해주시 대북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송명철동무로부터 자기를 친혈육처럼 돌봐주고있는 한 녀성의 소행을 적은 편지를 받았다. 그때로부터 또 얼마후에는 해주시 광성사에서 사는 영예군인 유희동무가 보내온 그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그 주인공이 바로 해주시편의봉사관리소에서 일하는 김정옥동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기다른 불원한 어려움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해주시 세기거리에서 살고있던 김정옥동무가 대북동 83인민반에 이사를 온것은 지난해 8월이였다. 어느날 그는 자기 인민반에 영예군인이 살고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인민반에게서 그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는 남편인 리순철동무에게 영예군인을 친누이런 심정으로 잘 도와줄 자기의 결심을 다짐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김정옥동무와 영예군인가정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김정옥동무는 가정에 색다른 음식이 생기고 생활습관이 달라져나오자 늘 한민민중에서 생활하는 영예군인가정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영예군인 송명철동무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잘 도와줄 생각뿐이였다.

언제인가 김정옥동무는 광성동에 살고있는 영예군인 유희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하반신 장애를 가진 유희동무는 친제만세 높이고 시기를 위한 사업에 충성을 다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결심을 안고 두 영예군인의 가정을 친혈육처럼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다.

특약기자 리승철

을 가진 약품을 제조할수 있다. 나노입자는 인체내에서 약물전달이 쉽게 이루어지게 하여 여러종의 나노입자들이 들어있는 지능형 나노입체에 주입되면 주동적으로 암세포를 찾아 공격하거나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킬수 있다.

나노재료를 리용한 새로운 진단기구를 사용하면 적은 양의 혈액만으로도 그 안의 단백질과 DNA를 통하여 각종 질병을 진단할수 있다.

나노재료로 만든 나노다기능수지는 항균, 내세균, 항부식, 로화방지, 자외선차폐작용을 하므로 탕동이나 공기조화기의 항균 및 냄새 제거수지로 리용할수 있다.

합성섬유수신에 나노산화규소나 나노산화아연, 그 복합 분말체료를 첨가하고 실용 분야에 원을 써면 살균, 방독, 약취제거 및 자외선방지기능을 가지는 옷을 만들어 여러 분야에서 효과를 높일수 있다. 환경과학분야에서는 기능이 독특한 나노박막이 널리 쓰이게 될것이다. 이러한 박막은 화학식약이나 생물식약에 의한 오염을 검출하고 이러한 시약들에 대한 제거를 진행함으로써 오염을 제거하게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재료과학부 강좌장 김승철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로동당

김정일 화선 시회 로씨야에서 진행

김정일 화선 시회가 조선로동당 창건 68돐에 즈음하여 11일 로씨야 울라지보스크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불멸의 꽃 김정일 화와 김정일 화를 형상화한 대형전광사전을 배경으로 활짝 피어난 김정일 화들과 위인칭송의 꽃이 국제화초전시회들에 출품된 자료들을 수록한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연례변경과 울라지보스크시의 정예, 사회적, 군부인사들과 군중이 전시회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로씨야연방공산당 연례변경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 화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애도의 정이 여러

있는 불멸의 꽃이다. 김정일동지는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회사의 위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 가시게 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부수권명칭국장 지배인은 조선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전면시킴을 결심하신 위대한 수령의 마음으로부터 김정일 화에 깊이 매혹되었다고 말하였다.

태평양함대의 지휘관은 세상에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들은 많지만 수령의 존엄을 지키는 꽃은 오직 조선에만 있다고 하면서 원동맹에 남긴 김정일동지의 업적과 더불어 김정일 화는 온 세상이 만발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일 동지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당이 로속하고 세련된 불멸의 당으로 강화발전됨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조선인민은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자주, 김, 선군의 김, 사회주의 김, 립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김정은 각하를 당하여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일 동지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당이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강화발전됨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조선인민은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자주, 김, 선군의 김, 사회주의 김, 립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김정은 각하를 당하여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축 집회 진행

조선로동당 창건 68돐 경축 집회와 로씨야 모스크바와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우간다 캄팔라에서 6일과 9일에 진행되었다.

집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 드미트리 요스체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며 그들을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조직동원하는 창조자이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운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일-김정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시어 인민의 복리를 위한 정치를

펼치시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 계신다.

로씨야 김정일 동지 조국연구보급추진협회 위원장 와짐 푸지민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조선로동당은 단순한 집권당이 아니라 자기들을 풀어주고 보살펴주며 운명을 책임져주는 어머니당이다.

바로 이 어머니당이 사람들에게 고고한 정치적생명을 안겨 주었다.

인민들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면서 승리만을 이룩하시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정력적인 령도로서 기적을 창조하고 계신다.

그의 원칙적인 자속자육은 조선의 도처에 어려웠다.

우간다대통령상급공 기문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일 동지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당이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강화발전됨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조선인민은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자주, 김, 선군의 김, 사회주의 김, 립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김정은 각하를 당하여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일 동지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당이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강화발전됨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조선인민은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자주, 김, 선군의 김, 사회주의 김, 립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김정은 각하를 당하여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일 동지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당이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강화발전됨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조선인민은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자주, 김, 선군의 김, 사회주의 김, 립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김정은 각하를 당하여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체육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넷에 글 발표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에서의 체육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서 체육발전이 세차게 일고 있다.

우나라가 체육발전으로 뛰어넘는 속도에 가는 곳마다에서 운동비마력이 불고 있다.

나로부터 편이 진행되고있는 국제경기장에서 체육인들이 승리를 다투며 새 기록을 창조하고있는 가운데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등에서 다양한 체육경기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평양의 대중간판을 비롯하여 곳곳에 꾸러진 공헌들은 배우와 바드민턴을 비롯한 운동하는 사람들 눈 불 흥성거리고 있다.

조선사회를 휩쓸고있는 체육

열풍은 김정은 령도자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가까운 몇해에 조선은 체육강국의 지위를 올려세 우시려는 것이 바로 김정은 령도자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김정은 령도자의 깊은 관심속에 체육에 대한 정열한 지도책이 마련되고 과학적인 선수후비양성체계가 강화되는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편이 취해졌다.

김정은 령도자께서는 체육개발과 전술체계, 훈련방법도 가르쳐주시었다. 체육과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 선수선발과 양성사업에 전방성있게 할 대 대한 문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 대한 문제 등 체육강국건설의 방향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넷에 글 발표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에서의 체육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서 체육발전이 세차게 일고 있다.

우나라가 체육발전으로 뛰어넘는 속도에 가는 곳마다에서 운동비마력이 불고 있다.

나로부터 편이 진행되고있는 국제경기장에서 체육인들이 승리를 다투며 새 기록을 창조하고있는 가운데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등에서 다양한 체육경기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평양의 대중간판을 비롯하여 곳곳에 꾸러진 공헌들은 배우와 바드민턴을 비롯한 운동하는 사람들 눈 불 흥성거리고 있다.

조선사회를 휩쓸고있는 체육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넷에 글 발표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에서의 체육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서 체육발전이 세차게 일고 있다.

우나라가 체육발전으로 뛰어넘는 속도에 가는 곳마다에서 운동비마력이 불고 있다.

나로부터 편이 진행되고있는 국제경기장에서 체육인들이 승리를 다투며 새 기록을 창조하고있는 가운데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등에서 다양한 체육경기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평양의 대중간판을 비롯하여 곳곳에 꾸러진 공헌들은 배우와 바드민턴을 비롯한 운동하는 사람들 눈 불 흥성거리고 있다.

조선사회를 휩쓸고있는 체육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넷에 글 발표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에서의 체육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서 체육발전이 세차게 일고 있다.

우나라가 체육발전으로 뛰어넘는 속도에 가는 곳마다에서 운동비마력이 불고 있다.

나로부터 편이 진행되고있는 국제경기장에서 체육인들이 승리를 다투며 새 기록을 창조하고있는 가운데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등에서 다양한 체육경기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평양의 대중간판을 비롯하여 곳곳에 꾸러진 공헌들은 배우와 바드민턴을 비롯한 운동하는 사람들 눈 불 흥성거리고 있다.

조선사회를 휩쓸고있는 체육

소년로동을 근절할 것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소년로동과 같은 한심한 사회적현상을 없애자면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세계경제문제를 발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평화협력》의 간판을 단 평화파괴책동

지금 남조선피괴들이 박근혜의 동남아시아행 각 기간 적극 광고한 그 무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안보대화구상》이라는 것이 여러 나라들로 부터 《지지》를 받았다느니 뭐니 하면서 마치 요란한 《성과》를 거두기라도 한듯이 제김에 으시대며 회째 놀아대고 있다. 북남사이의 관계개선과 평화와 군사적대결을 반대하며 한창에 날뛰는 자들이 《평화협력》이니, 《안보》니 하며 내외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실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대북, 대외정책의 기초》로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외세에게 구차스럽게 반공화국대결공조를 구걸하여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이 오늘에 와서는 여러 나라들이 《지지》하는 듯이 오사되고있고, 피괴들의 망종야만부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물을 열심히 팔고있는 골목장사나를 편상시키고 있다. 피괴들이 그뒤와 자화자찬으로 서문짜리 몸값을 올리고 대결기도를 가리워보려 하지만 그런 유적수범은 통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내세우고있는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신뢰》의 간판밑에 그 누구의 《변화》를 유도하여 《세계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불순한 대결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나 《안보대화》라는 것도 따지고보면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의도대로 동북을 괴롭힐수 있는 현 국제적인 반공화국대결의 틀거이다. 피괴들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신뢰》니, 《평화협력》이니, 《안보》니 하고 요란히 떠들어대지만 사실 그들은 외세와 작당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압박의 포위환을 더욱 조여 북침공세를 한사코 실현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동맹》과 반공화국대결공조의 강화는 피괴들이 운운하는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안보대화구상》의 기본색으로 되고있다. 북남관계가 파국적위기에 처한 지금 남조선당국은 동북대결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미국과 북침전쟁 《동맹》강화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최근 피괴들은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떠벌리며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공작각본인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 데 맞갖은 공작을 하였다. 자체의 《미세일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간판밑에 실제로는 미국의 《미세일방어체계》가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

미혁항공모함을 조선동해와 남해, 서해에 편이 끌어들이고 미국과 북침핵심세력공격을 가한 극히 위험한 해상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군사적대결행위를 정선병자가 아니고 아시아 어떻게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으로 생각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이미전부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 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한다는 데 대해 숨겨지 않았다. 그는 남조선미국 《동맹》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루》로 개여들리면서 자기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미국대통령의 아시아대군령정책이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상승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떠벌이었다. 피괴의 교부장관 윤병세 역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남조선미국 《동맹》과 모순되지 않으며 저들이 오히려 미국의 아시아대군령정책을 보완해나갈 것 이라고 떠벌어댔다. 이것은 피괴들 스스로가 미국과의 침략적인 《동맹》을 강화하고 상진의 대조선침략정책실현의 돌격대노릇을 하기 위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 것을 들고나왔다는 것을 실도한것으로 된다.

남조선집권세력이 꾀대적으로 추구해온 미국과의 《동맹》강화는 언제한번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에 이바지한적이 없다. 그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면서 북침전쟁위기와 새로운 세계대전의 위험을 몰아온 범죄적인 결탁이었다. 친미세력과 동북대결을 제일로 하는 현 피괴집권세력의 호전정책으로 미국과 남조선의 북침전쟁 《동맹》은 력사상 가장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 조선반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준다. 그런즉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들어대고있는 《평화협력》이란 본질에 있어서 평화파괴, 북침전쟁의 구조이다.

외세의 북침전쟁 《동맹》강화로 동북을 해치려고 피괴들 북남의 피괴들이 《신뢰프로세스》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니, 《안보대화구상》이니 하고 아무리 공물을 들구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남조선당국은 내외여론을 기만하는 허튼 말장난을 그만두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강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미국과의 《동맹》강화책무부터 걸쳐져야 한다.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그들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이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다짐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리비아 조선 친선 협회 결성

리비아조선친선협회결성식이 10일 라카르타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다.

리비아의 각계 인사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협회위원장으로 쉰블라주제친선

구락부 총서기대리 아흐마드 알 콜레이비가 선출되었다.

협회위원장을 비롯한 연설자들은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면시킴을 위한 김정일 동지와 김정일 동지,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그들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이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다짐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중국과 웨남이 13일 해양, 금융 등 분야에서 협조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중국과 로씨야가 15일 에네르기분야에서 쌍무협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11일 중국과 브루나이사이에서 해상협조를 강화하며 공동개발을 추진할데 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같은 날 중국은 타이와 두 나라 및 필리핀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데 대해 합의하였다.

한편 최근 두 나라는 각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해 합의하였다.

리비아조선친선협회결성식이 10일 라카르타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다.

리비아의 각계 인사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협회위원장으로 쉰블라주제친선

리비아조선친선협회결성식이 10일 라카르타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다.

리비아의 각계 인사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협회위원장으로 쉰블라주제친선

침략과 군사적패권을 노린 위험한 결탁

동북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패권을 노린 미국과 일본의 결탁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말전에 일본의 도쿄에서는 미일안전보장협의체회담이 열리고 회의뒤에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채택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및 군사당국자들이 모여앉아 축적거리면서 만들어진 공동성명은 미국의 일본과의 집단적위협행위를 포함한 군사력강화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를 놓고 아시아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우려와 강한 경계심을 표시하고 있다. 유럽의 한 보도기관은 이번 발표된 미일안전보장협의체회담 공동성명은 제2차 세계대전후 동북아시아에서 유지되어온 전후체제를 흔들고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파장이 클것이라고 전하였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결탁하여 조작해낸 이번 공동성명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긴장시켜서 몰아가는 평화파괴공작이며 침략선봉이니 같다.

공동성명은 미일군사동맹의 군사작전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보다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완전히 배지화하고 전쟁국가로 될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찾아볼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결과 전제국으로 굴러떨어진 일본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의지에 따라 집단적위협행위를 행사할 권리를 포기하였다. 그러한 내용이 일본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헌법 9조는 일본의 전투력보유와 전쟁, 집단적위협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일본의 헌법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되었다.

일본정부는 헌법에서 대한 제김들을 다그쳐 집단적위협행위를 행사할수 있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패권을 노린 미국과 일본의 결탁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말전에 일본의 도쿄에서는 미일안전보장협의체회담이 열리고 회의뒤에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채택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및 군사당국자들이 모여앉아 축적거리면서 만들어진 공동성명은 미국의 일본과의 집단적위협행위를 포함한 군사력강화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를 놓고 아시아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우려와 강한 경계심을 표시하고 있다. 유럽의 한 보도기관은 이번 발표된 미일안전보장협의체회담 공동성명은 제2차 세계대전후 동북아시아에서 유지되어온 전후체제를 흔들고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파장이 클것이라고 전하였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결탁하여 조작해낸 이번 공동성명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긴장시켜서 몰아가는 평화파괴공작이며 침략선봉이니 같다.

공동성명은 미일군사동맹의 군사작전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보다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완전히 배지화하고 전쟁국가로 될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찾아볼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결과 전제국으로 굴러떨어진 일본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의지에 따라 집단적위협행위를 행사할 권리를 포기하였다. 그러한 내용이 일본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헌법 9조는 일본의 전투력보유와 전쟁, 집단적위협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일본의 헌법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되었다.

일본정부는 헌법에서 대한 제김들을 다그쳐 집단적위협행위를 행사할수 있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패권을 노린 미국과 일본의 결탁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말전에 일본의 도쿄에서는 미일안전보장협의체회담이 열리고 회의뒤에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채택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및 군사당국자들이 모여앉아 축적거리면서 만들어진 공동성명은 미국의 일본과의 집단적위협행위를 포함한 군사력강화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를 놓고 아시아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우려와 강한 경계심을 표시하고 있다. 유럽의 한 보도기관은 이번 발표된 미일안전보장협의체회담 공동성명은 제2차 세계대전후 동북아시아에서 유지되어온 전후체제를 흔들고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파장이 클것이라고 전하였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결탁하여 조작해낸 이번 공동성명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긴장시켜서 몰아가는 평화파괴공작이며 침략선봉이니 같다.

공동성명은 미일군사동맹의 군사작전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보다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완전히 배지화하고 전쟁국가로 될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찾아볼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결과 전제국으로 굴러떨어진 일본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의지에 따라 집단적위협행위를 행사할 권리를 포기하였다. 그러한 내용이 일본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헌법 9조는 일본의 전투력보유와 전쟁, 집단적위협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일본의 헌법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되었다.

일본정부는 헌법에서 대한 제김들을 다그쳐 집단적위협행위를 행사할수 있는